개인정보 유출·교수 채용 문제 '도마위'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진행된 전북대 국정감사 에서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이자리 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 등이 도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나 해 전북대에 3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 출됐고 2차 피해 위험을 초래했다"며 "올해 6월9일까지 보고된 내용보면 개 인정보 민원상담이 874건, 이메일 477 건, 국민신문고 13건 등 유출관련 상 단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북대가 왜 사전적으로 중간과정에서도 예방조치가 없었는지 근복적인 원인은 파악했냐"며 "사고 직후 이런 문제를 은폐하기 바쁘고 사 실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북 대가 피해를) 은폐·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 총장은 "일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송구하고 철저한 대비를 못한 점 에 대해 사과의 말을 드린다"면서도 "사고 당시 우리는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했지만 미리 막지 못했다. 이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2차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해 48시간이 지난 후 공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북대 국정감사

양오봉 총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체계 재정비할 것" 교수 채용 문제와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책임 묻겠다" "논문 공장 관련 전수조사" 의원 지적에 "엄중 처벌할 것"

양 총장은 "특정인이 자료를 유출했 다는 걸 알려줘서 2차 피해를 방지하 는 데 최선을 다했고 선제적 대응을 했다"며 "올해 말까지 10억원을 투입 해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중이 다. 보안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상담 내용을 보 면 피해자들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를 실적으로 요구했는데 전북대는 원 론적 답변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 치하는지 피해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은 지난해 10월 전북대 특정학 과 교수 공채 과정에서 학과장이 관련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특정인에게 유 리하도록 '10개국 이상 국제전' 이라는 심사 항목을 추가하려 한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연구 비 횡령과 교수 갑질 등의 논란이 잇 따라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앞서 전북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 립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19~2024 년 5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

양오봉 총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송 구하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성 원 전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 고 중간 점검 감사를 확대하는 등 개 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 도 "지난해 전북대 미술학과 교수 채 용 과정에서 심사항목이 기존과 다르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22일 전북대 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 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게 변경됐는데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 하게 항목이 끼워 넣어진 정황이 있 다"며 "심사위원과 지원자 간의 특수 관계 의심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 교수가 응시자 중 한 명과 작품전을 함께한 이력이 있다"며 "전북대 교원 임용 지침에는 이런 경우 제척 • 기피 대상임에도 사전신고가 없었다. 전북

'제척기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 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오봉 총장은 "채용 과정에서 미비 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며 "수 사기관에 해당 사안을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 위가 어떻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 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은 "전북대가 논문 공장을 통한 논문 이 3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 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

김 의원은 "논란이 된 논문 중 34% 비율로 전북 소재 대학이고 전북대는 이 중 3건으로 확인됐다"며 "전북대가 호남의 중심 대학인 만큼 전수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총장은 "철저한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구 진실성 위원 회를 통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 /장은성 기자 다"고 말했다.

강동화 도의원, 초등생 대상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 북특별자치도교 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 안'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심의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른 사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런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 조항으 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한글사랑 교육사 업 추진,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교육청 은 매년 한글사랑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만호 기자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22일 제 298회 임시회를 열고, 31일까지 10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각 종 조례안 심사 및 지난 제2차 정례회 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 태조사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억원 이상 군정주요 현 안 사업장 중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 장 15개소와 읍·면 소규모 주민숙 원 시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할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정숙 의 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급자 압류·부도 시 하도급 지역업체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정부 성공 등 이끌 개혁 도당위원장"

민주 신영대 의원, 도당위원장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 제·부안갑)은 22일 오전 전북특별자 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전북의 발전과 이재명 국민주권정 부의 성공,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이 끌 강력한 개혁 도당위원장이 되겠다" 며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승우 전북도의 회 의장을 비롯해 박정희·강태창· 김동구 도의원,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 장 등 군산 지역의 주요 정치인과 지 지자 70여 명이 참석해 신 의원의 출 마를 지지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전북 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며 "새만 금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 기고, 세만금 SPC 예산을 78% 삭감해 지역 발전 동력을 꺼버렸다"고 비판했

이어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전북이 다시 한 번 대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남아 있는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검 찰·시법·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북의 미래비전과 지역 현안 해결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 다. 그는 "세만금을 2차전지와 방산,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 로 키워 첨단산업 국가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며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 과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 남원 공 공의대 설립, 제2공공기관 이전 등 지 역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 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이 다. 도당이 강해야 전국 민주당이 힘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역대 최대'… 최장 8년 1개월 기다려야

을 얻는다"며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 접 듣는 소통형 도당을 민들고, 평당 원도 지도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은 '노컷' 원칙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 겠다"며 "정청래 당 대표와 발맞춰 개 혁과 통합의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당선자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로, 당내 최 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전북도당 위원장에 합의 추 대가 이뤄지지 않아 권리당원 90%, 대 의원 10% 비율로 경선이 치러질 예정 이다.

도당 관계자에 의하면 21일까지 전 북도당 위원장 등록 결과 윤준병 의원 과 신영대 의원 두 후보가 등록했다고 /이만호 기자

도의회, 전북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는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 방위원회 • 전주 10선거구)이 대 표발의한 '전북



들이 치료와 재활을 위해 타지역 산재 병원을 방문하고 있어 시간적 · 경제 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문제의

경에는 도내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없어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산재환자





금바로 가입해야 할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월 300만원 한도) 농지가격: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연금수령액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kr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대기자 늘고 기증자 줄어… 박희승 의원 "국가 차원 인식개선 시급"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기자 수와 대기 기간 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뇌사 장기기 증자는 오히려 감소해 장기이식 대란 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 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이 국립장기조직혈액과리원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 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020년 2,191명에서 지난해 3,09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이 1,676명(54.1%) 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1.117명(36.1%), 심장 142명(4.6%), 폐 88명(2.8%), 췌장 72명(2.3%)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장기이



식 대기자 수는 2020년 3만5,852 명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6,935명 으로 1.3배 늘었 다. 이 중 신장이 전체의 78.6%(3 만6.901명)를 차

지했고. 이어 간 장 6,609명(14.1%), 췌장 1,602명

(3.4%), 심장 1,271명(2.7%) 순이었다. 대기 기간 또한 해마다 길어지고 있 다. 신장의 경우 2020년 평균 2,222일(약 6년)에서 올해 2,963일(약 8년 1개월)로 늘었고, 췌장은 같은 기간 1,391일에서 2,800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뇌사 장기기증지는 2016년 573 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증 건수도 1,888건에서 1,377건으로 줄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하국의 뇌사 장기 기증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률은 한국이 7.75%로, 미국(28.4%), 스페인 (26.22%), 스웨덴(17.1%), 독일 (11.44%), 영국(10.28%) 등에 크게 뒤 처졌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 여파로 장기기증 참여가 줄어드 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수년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 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고, 기증희망등록 절차의 접근성을 높여 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 /이만호 기자 련을 촉구했다.